

여수 전라좌수영 동헌 100년만에 복원된다

1919년 화마로 사라져... 발굴조사서 배수로·담장 등 확인 시, 2022년까지 운주헌·결승당 등 동헌 내 8동 복원키로

1919년 화마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전라좌수영 복원이 100년만에 이뤄지면서 감춰졌던 옛 유물이 빛을 보게 됐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총 215억원이 투입돼 전라좌수영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수시 중앙동 일대 1만1263㎡에 전라좌수영에 속해있던 운주헌과 결승당 등 동헌 내 건물 8동에 대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시공조사가 완료되면서 올해 1월부터 총 4단계의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금까지 출토된 고지도와 고문헌, 발굴성과 등을 종합해 전문가포럼을 갖고 조만간 시민에게도 발굴현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사업은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에게 맡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건물지 11동과 축대 2기, 인도시설, 담장지, 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발굴조사 관계자들은 토층과 건물지 모양을 토대로 해당 위치 건물이 최소 3차례 이상 소실되고 중건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수차례 재건이 이뤄진 동헌 고문헌 기록과도 일치한다.

전남문화재연구원은 발굴조사에서 군

자동 465번지를 중심으로 공무를 보던 관아 건물이 확인됐고 동쪽으로 구들시설을 갖춘 내아 건물과 북동쪽으로 일부 담장시설도 확인했다.

발굴단은 이러한 배치지 1815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호좌수영지 영성도'에 그려진 동헌 일원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또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조선시대 기와도 확인됐는데, 몇몇 기와는 '節度使 李□', '九月...寺內...鄭屍...', '...乙酉...'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정성(鄭成)'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는데 관계자들은 전남관에 걸려있는 '진남관 중건 참여 인명록을 기록한 현판'의 '군관 정성 책응도감(軍官 鄭成 責應都監)'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남관 중건 책

응도감 정성이 전남관 중건을 전후해 동헌 수리에도 참여한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발굴단은 지금까지 나온 발굴품이 현재의 발굴지가 조선시대 동헌 건물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시와 전남문화재연구원에게 개최한 발굴조사 자문회의에서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과 신용주 조선대 교수, 윤덕향 호남문화재연구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현재의 발굴지가 조선시대 동헌 건물지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보수 중인 전남관이 2020년 위용을 드러내고 군자동 일원에 운주헌과 결승당 등이 복원되면 여수는 호국충절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구국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영도감 정성이 전남관 중건을 전후해 동헌 수리에도 참여한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발굴단은 지금까지 나온 발굴품이 현재의 발굴지가 조선시대 동헌 건물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시와 전남문화재연구원에게 개최한 발굴조사 자문회의에서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과 신용주 조선대 교수, 윤덕향 호남문화재연구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현재의 발굴지가 조선시대 동헌 건물지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보수 중인 전남관이 2020년 위용을 드러내고 군자동 일원에 운주헌과 결승당 등이 복원되면 여수는 호국충절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구국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남관 보수작업과 동헌터 발굴이 본격화하는 등 역사속으로 사라졌던 전라좌수영에 대한 복원사업이 한창이다. 전남관(왼쪽)과 동헌터 발굴과정에서 나온 기와 파편. <여수시 제공>

충무공 흔 짓든 호국의 상징... 승례문 이후 최대 복원사업

보수공사 한창인 전남관은

현존 지방 관아 건물 최대규모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

여수시는 이번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을 계기로 여수가 호국충절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구국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복원사업의 중심에 있는 전남관 보수가 화제로 소실된 승례문 복원 이후 최대 규모의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국충절 짓든 곳, 여수의 상징으로 동헌은 고을의 수령 등이 정무를 보던 곳으로 전라좌수영 동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직접 군무를 본 공간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군령을 내리던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곳에는 현재 전남관이 있다.

전남관은 여수를 상징하는 문화재다. 그 규모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구국의 영웅 이순신장군의 숨결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전남관 보수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4~2012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진행 중이다.

2015년 착공된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보수공사는 문화재 시공조사 등으로 1년간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 5월 재개됐다.

현재는 전남관 지붕을 덮고 있는 전통기와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썩은 목재는 새로

교체하고, 마루와 단청 등 변형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300년 전 옛 모습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현존 지방관아 건물 중 최대 규모=전남관은 이순신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삼았던 곳에 터를 잡고 있다. 원래는 진해루라는 누각이 있었으나 정유재란 때 불타버렸다.

전쟁 직후인 선조 32년(1599) 이순신장군의 후임인 이시언이 진해루 터에 75칸의 대규모 객사를 세웠다. 이름은 남쪽의 왜구를 진압해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진남관(鎭南館)'이라고 지었다.

전남관은 숙종 42년(1716) 화재로 소실됐고 숙종 44년(1718) 재건된 뒤 수차례 중수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전남관은 1959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후에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됐다. 전남관은 길이 75m, 높이 14m, 면적 790

㎡로 현존 지방관아 건물로서는 가장 크다. 둘레가 2m가 넘는 기둥도 68개나 된다.

정면 15칸, 측면 5칸으로 총 75칸이 되는 건물은 사찰, 화랑, 궁전의 행랑, 종묘의 정전 같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합천 해인사의 경관고와 전남관이 유일하다.

전남관은 그 웅장한 기세덕분에 수군 지휘본부로 오해를 받곤 하지만 그 용도는 객사다. 객사는 중앙에서 온 관리를 영접하던 곳이었다. 외국 사신의 숙소로도 활용됐다. 고려 후기 기록에 객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고려 초기부터 각 고을에 지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남관 뜰 안에 세워져 있는 석인상도 유명하다. 돌로 만든 석인상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수에는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유적이 많은데 석인상도 그 중 하나다.

전남관 앞에는 왜군들의 활동을 살피던 망해루(望海樓)가 있다. 망해루는 일제강점기에 철거됐다가 1991년 새로 지어졌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천년의 사랑 담은 웹드라마 '마녀목' 제작

4부작...여수시 오늘 공개

여수시는 천 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마녀목'(馬女木·사진)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화정면 개도의 450년 된 느티나무에 서린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웹드라마를 27일 오전 10시 전남문화재단에서 공개한다.

'마녀목'은 마부의 딸 복녀와 신라시대 해물서랑의 사랑 이야기로 전설의 기억을 찾아 세 남녀가 여수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4화로 구성됐으며 1화는 두 주인공이 전생의 기억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내용으로 이뤄졌고, 2화는 우삼·복길·수민 등 세 남녀가 정쟁이 말에 따라 마녀목을 찾으며 여수로 떠나는 이야기다.

3화는 여수 여행을 즐기는 세 남녀가 느끼는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며, 4화는 개도에서 마녀목을 찾아 현세에서 이뤄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여수시는 유튜브 등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고 드라마 배경이 된 여수 관광지도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를 배경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해 호응을 받았다. 2016년 발표한 웹드라마 '신지끼'는 제2회 국제영화제 K웹페스트 베스트 프로덕션 디자인상을 받았고 작년에 공개한 '여명'은 서울국제웹페스트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칼텍스, 내고장 역사 탐구 프로그램 연중 실시



지난 23일 여수시 소호동 GS칼텍스사택클럽하우스에서 개최한 '2018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 참석자들이 지역 역사 사료집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가 여수 어린이들이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내고장 역사 탐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

GS칼텍스는 지난 23일 여수시 소호동 GS칼텍스사택클럽하우스에서 '2018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GS칼텍스 강정범 상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경희 회장, 10개 여수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은 2010년부터 GS칼텍스가 미래 지역 사회의 주역이 될 여수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여수 지역 40개 지역아동센터 중 매년 10곳의

어린이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8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수 어린이들이 지역 역사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내고장 역사 탐구 프로그램 '큰 바위 얼굴'을 진행한다.

4~5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전문 강사들의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8월까지 여수 지역 문화유적을 4개 테마(고인돌과 선사유적, 여수의 산성, 전라좌수영과 호국문화, 흥국사와 광양만권)로 구분해 지역아동센터당 총 4회의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GS칼텍스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260쪽 분량의 지역 역사 사료집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를 제작 배포해 어린이들의 학습을 도울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oticon PEOPLE FIRST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